

제 13강 영광스러운 변모와 최후의 심판

1.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루카 9,28~36)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루카 9,20), 예수께서 제자 직분에 대해 설명하신 지 약 8일이 지난 후, 그분께서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가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루카 9,28~36).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고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의 품속으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떠나가심이 예언된 것이고 세상 종말의 결정적 구원임을 의미한다.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9,28~36까지는 루카 복음사가가 마르코 복음 9,2~10까지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가운데 루카는 ‘옛새 뒤에’(마르 9,2) 대신에 ‘여드레쯤’(루카 9,28)을, 세 사도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마르 9,2) 대신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루카 9,28)로, 마르코 복음(9,5)에서는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겹을 먹고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술했는데, 이 점이 루카 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루카 복음 9,28~36까지의 문학양식은 예수께 대한 이야기로서 예언적, 묵시문학적 서술이나 하느님의 발현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의 변모와 그 증인들(9,28~31)

둘째, 초막을 지으려는 베드로의 소망(9,32~33)

셋째,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신분을 확인하는 천상의 소리(9,34~35)

넷째, 제자들의 침묵(9,36)

1.2. 예수님의 변모와 그 증인들(9,28~31)

28절 :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오르셨는지 알 수 없다. 소급되는 교회의 전통으로는 그곳을 타볼산(588m)으로 여겨왔다. 산은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소였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현장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루카8,51) 그들은 이 소생기적과 예수님의 변모에 대한 증인이다.

29절 : 예수님의 변모는 그분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했음을 뜻한다.(루카 9,32) 이 변모는 밤중에 일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있는 지 하루가 지나

서 그분의 세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기 때문이다.(루카 9,37)

예수님의 변모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모세의 얼굴은 시나이 산에서 야훼의 만남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다’(탈출 34,29).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현존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미리 입으셨던 것이다. 변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함임을 드러낸다.

30절 :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동안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로서 예언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의 변모 때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결정적 예언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엘리야는 세상 종말의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로서(말라 3,23~24)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긴 전통이 있었다.

31절 :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싸여 나타났다는 말은 루카 복음에만 나온다. 이 말은 그들이 천상적 인물됨을 가리킨다. 영광은 하느님의 빛나는 현존양상을 뜻한다 (탈출 24,17; 40,34).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 십계판을 받아 들고 내려 올 때, 그의 얼굴이 야훼의 빛나는 영광으로 바뀌었다. 루카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살다가 천상으로 올라간 엘리야도 모세처럼 영광을 띠었다고 서술했다.

영광은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사는 자격을 뜻한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현존 속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속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루카 9,3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구원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그들의 이러한 체험은 야훼의 영광을 체험한 것과 관련된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전 과정, 즉 그분의 죽음, 부활(루카 9,22), 승천(9,51)과 재림(9,26; 12,35~37; 19,11~13)을 망라하는 전 생애를 가리키는 것 같다.

루카 복음사가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상 종말에 성취하실 것임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자의 안목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떠나가심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의 등장에 대한 서술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 종말의 결정적 구원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

1.3. 초막을 지으려는 베드로의 소망(9,32~33)

32절 : ‘영광’은 권능에 찬 하느님의 신적본질이나 찬란한 현존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변모 때에 이미 지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입으셨다. 이 영광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세상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이고 다시 오심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세상 종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 제자들이 미리 맞본 예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제자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제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살아 있는 동안 하느님의 왕국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루카 9,27)에 연결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 예수님의 권능, 즉 그분의 영광은 하느님의 왕권과 관련된다.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하느님 왕권의 모든 신비들을 보았다기보다 이 신비들 가운데 한 측면을 체험했다. 이 측면은 하느님 왕권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세상 종말의 영광을 띤 예수님 안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3절 :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기뻐하는 축제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 축제는 유대인 성인 남자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든 소년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칠 일 동안 초막이나 오두막에서 기거한 순례축제였다.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초막을 짓고 칠 일 동안 기쁜 축제를 거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영광을 띤 예수님과 구약의 두 성인들의 등장에 대한 기쁜 체험을 초막절의 기쁨에 비유한 것이다. 초막을 지으려는 베드로의 소망은 천상적 초막을 연상하게 하고 이 초막에서 사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맞본 천상적 기쁨은 세상 종말의 기쁨을 예상한 것인데도, 그는 이 기쁨을 지상에서 계속하려는 잘못을 저질렀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동등하게 각각 한 초막씩 지어드리겠다고 제의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두 예언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뜻하고 베드로의 잘못된 판단이다. 또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과 그들이 영광을 입으신 것을 보고서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착각하고 산 위에서 그

복된 체험을 계속하려 한 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과 두 천상적 인물들을 위해 초막을 짓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부질없는 것이다.

1.4.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신분을 확인하는 천상의 소리(9,34~35)

34절 :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 세상 종말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은 예수님의 변모로 실현되었다. 이 변모 때 나타난 구름도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하느님이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 새로운 구원시대를 시작하시고, 새 시대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변모는 제자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계기였다. 하느님은 초막 대신에 당신 현존과 영광으로 그들을 감싸셨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무서워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데 기인한다.

35절 : 이 천상의 소리는 하느님이 변모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당신 아들, 선택된 분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 신분에 대한 말씀은 임금이신 메시아에 대한 시편 2장 7절(“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을 암시한다. ‘선택된 이’는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은 종에 대한 기록(이사 42,1)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내 아들, 선택된 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메시아, 종’으로 확인하셨음을 뜻한다.

천상의 소리는 변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명했다(루카 9,35). 이 명령은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신명기 18장 15절의 진술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임금과 같은 분임을 뜻한다. 제자들은 영광을 입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집착하지 말고(루카 9,33)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하느님께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길을 계시하시는 데 모세를 훨씬 능가하는 예언자임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메시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명령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이다.

예수님의 하느님 아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계시는 변모 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통해 서술되었다. 변모 때의 확인과 세례 때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표현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ㄱ)

루카 복음의 변모 장면에서는 천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단수 3인칭(‘이는’)으로, 세례

때는 단수 2인칭(‘너는’)으로 일컬었다. 3인칭은 제자들이 청중이기 때문에 사용되었고, 2인칭은 하느님이 직접 예수께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한다.

1.5. 제자들의 침묵(9,36)

36절 ㄱ : 변모사건은 세상 종말의 완성을 예상하는 것이고, 이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36절 ㄴ : 예수님의 변모사건은 제자들이 침묵 속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떠벌리면, 그 의미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마르코 복음(9,8~10)과 마태오 복음(17,8~9)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 때까지 침묵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변모의 의미를 그분 부활에 대한 신앙의 빛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을 공적으로 거론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후의 심판(마태 25,31~46)

2.1. 문학양식과 구조

비유를 통한 최후의 증언,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 사람의 아들이 내려옴과 그 역할(25,31~33)

둘째, ‘복을 받은 사람들’과의 대화(25,34~40)

셋째, ‘저주받은 자들’과의 대화(25,41~45)

넷째, 판결의 집행(25,46절)

2.2. 도입(25,31~33)

인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구약의 상투적 표현들을 따라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 이런 구도는 분명하다. 즉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망라한 모든 인간이 법정으로 소환된다.

팔레스티나에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길렀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는 염소들을 불러 좀 더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해 양과 염소를 갈라 놓았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의 구분 작업이다. 선한 자와 악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이런 구분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표현들은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철저한 방법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3. '복을 받은 사람들'과의 대화(25, 34~40)

선택된 이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34절).

'세상 창조 때부터' 그들을 위해 마련된 하늘나라는 예수가 지금 당신 왕국의 계시자라는 것이다. 선택된 이들이 그들의 임금에게 실행했다고 간주되는 '사랑의 행위들'이 열거된다(35~36절). 그렇지만 그 목록에는 포로들을 방문한 경우가 빠져 있다. 이 사랑의 행동은 분명히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투옥되던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것일 터이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35절) - 이는 하느님께서 불행의 원인과 현실을 장악하시며 그 안에 계신 까닭이다. 이 굶주린 이들과 결별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37절은 의인들의 놀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한 것이 그들의 임금인 예수에게 봉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한 행동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오직 심판만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연대성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25,40)과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25,45)은 이 점을 단호한 형태로 장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미 박해를 당하는 제자들(10,42)과 힘없는 어린이들(18,5)과의 연대를 표명했던 예수는, 여기서 제한없이 또 차별없이 모든 비천한 자들 - 자신들의 인간성 안에서 위협을 당하던 - 과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 이론가들은 종종 불행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자기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위험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인간은 이웃사랑의 계명(둘째가는 계명)에 의해 타산 없이 순종함으로써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사심 없는 자세로, 제자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랑 안에서 하나의 구심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안에서 이웃에 대한 충만한 공경의 자세가 드러나며, 또한 불행의 원인과 현실을 쥐고 계신 하느님께 대한 공경(첫째가는 계명)이 드러난다.

2.4. '저주받은 자들'과의 대화(41~45)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의 도식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소홀히 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임금에게 봉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놀라움이다. 또한 세상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을 통해 강조된 이웃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긴

모든 이들의 놀라움이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비신앙인들의 구원에 대한 물음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 전편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자선행위의 목록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재난들 - 식량결핍, 사회적 소외, 고향을 떠난 이방인들에 대한 소외, 썩어가는 채 방치되어 있는 병자나 남루한 행색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외, 자유를 박탈당한 포로들의 소외 -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투쟁과 결부된다.

2.5. 판결의 집행(46)

그 용어들은 다니 12.2에서 최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면에서 뽑아 온 것들이다. 이 분류는 이제 결정적이며 ‘영원한’ 것이 된다.

※ 엘리야

아합시대의 엘리야

엘리야는 길앗의 티스베 출신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시기에 살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며 시돈 왕의 딸 이제벨과 결혼하자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아합과 이제벨의 미움을 사 쫓기게 된 엘리야는 요르단 강 동쪽에 위치한 크릿 시내에 숨어지냈다.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셨고 음식은 야훼가 명령한 까마귀들이 떨어뜨려 주어 며칠 동안은 머물렀다.

이적과 카르멜산의 대결

엘리야는 야훼의 신탁에 따라 시돈의 사렘타로 가 머물렀다. 그곳에 한 과부의 친절한 대우로 숨어지냈을 수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켜 아이를 살려내게 하였다.

한편 가뭄이 몇 해 동안 계속되자 이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합은 궁내 대신 오바드야와 함께 엘리야를 찾으러 떠났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하게 된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신을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야훼를 부르자 곧바로 불로 응답하였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 바알의 예언자들을 처형했고 곧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야훼의 도움으로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아합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이르렀다.